



**Duc in Altum ( Put out into the deep,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캘거리 교구의 영적 쇄신을 위한 교구장 서한**

캘거리 교구의 교구민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서문**

1. 2020년 2월 27일은 제가 캘거리 주교로 착좌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구가 새로운 10년에 들어서면서, 저는 우리 교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3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고, 또한 우리 교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 캘거리 교구의 제 8대 교구장으로 착좌한 이후, 저는 교구의 사제들과 종신부제들과의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성직자의 신원에 관한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사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지속적인 사제양성, 가족 중심의 성사생활, 교구 사목센터의 구조와 선교에 대한 평가, 가톨릭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운영, 청소년과 가정사목 분야에 대한 재검토, 청년과 대학교 지도신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광범위한 본당구역에서 사제의 사목을 도와 줄 종신부제 양성과정의 재활성화를 포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 사제들과의 면담과정은 물론 교구내 본당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기회에 저는 본당의 제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평신도 교우들, 예컨대, 콜럼부스 기사단, 가톨릭 여성위원회, 성

빈센시오 데 바울로회 등에 속한 교우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본당 사목방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믿고 맡기신, 신앙과 본당의 선교사명에 관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음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 Duc in Altum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4. 2020년 올해, 우리는 2000년 대희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발표된 교황서한, 새천년기 (Novo Millennio Ineunte)의 공포 20주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 은, 예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의 말씀인,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Duc in Altum: 루카 5,4 )는 말씀과,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루카 5,6)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황서한을 시작하였습니다.
5.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구로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영적, 사목적 쇄신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 사명을 재발견하고 쇄신하고자 하며, 미래의 본당을 미리 예상해 보고, 교구의 사목계획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6. 대희년을 시작하면서 발표된 이 교황서한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직무를 통해서 교회 사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쇄신하고자 하시는 교황성하의 부르심의 방식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전통 안에서 보고 있는 신비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교회 성장의 각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사목 계획을 수립하기를 원하시는 교황님의 부르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는 바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살아 있는 성전(聖傳) 안에서 발견되는 계획으로,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계획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하며, 천상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그분과 함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사목 계획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상세한 사목 계획의 구체적인 측면들 — 목적과 방법, 관계자 교육과 보충 교육, 필요한 자원에 대한 조사 — 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목 계획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사람들에게 다다르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사회와 문화 속에 복음의 가치들을 심는데 깊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새천년기. 29항)
8. 교회의 사명은 동시대의 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쇄신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사제들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재발견하여,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쇄신된 사목적 리더십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진리 안에 뿌리박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위성과, 그분과 일치된 내적 생활과 성덕의 우위성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경시할 때, 사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적인 좌절감만 남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고기잡이 기적에 관한 복음

이야기의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루카 5,5) 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은 신앙과 기도의 순간이며 하느님과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의 물결에 우리 마음을 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Duc in Altum!)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루카 5,5) 하며 신앙의 응답을 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10. 본당신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다면, 그는 기쁨과 확신에 차서 신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 쇄신 프로그램

11. 이에 저는 교구 쇄신을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구민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며, 내가 속한 본당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한 열정을 불태움으로써,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방식으로, 이 쇄신 프로그램을 기꺼이 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12.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사목자와 공동체의 개방성과 선교적 창의성에 따른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본당 사목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기구는 아니지만,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적응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집안의 아들딸들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본당이 가정들과 사람들의 생활과 실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본당이 사람들과 동떨어진 쓸모 없는 구조도 아니고, 선택받았다고 자처하는 자기도취적 집단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본당은 그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본당사목구는 그 구성원들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당 사목구의 개편과 쇄신에 대한 호소가 아직은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여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28항)
13. 본당의 쇄신은 사제들이 자신의 사제적 삶과 영성을 쇄신하고, 나아가 그들이 직무를 쇄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목적 경험을 제공받게 되고,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교구 사목 쇄신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좋은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마르 2,22) 동일한 부르심과 여정이 평신도들, 수도자들, 그리고 그들만의 신앙고백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14. 저는 3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다단계의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직자들, 평신도들, 부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전 교구민이 쇄신 작업에 따로 따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쇠신 작업은, 기본에 충실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신앙을 살고, 우리의 영성적 삶을 심화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실성의 표지가 되도록, 정의와 거룩함을 증거하는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쇠신 작업은 우리가 속한 본당, 가정,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들이 속한 단체의 구조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구 어디에서나 사목적 서비스와 도움을 받아, 본당들과 공동체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15. 평신도의 쇠신 분야에서,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교구내 가톨릭학교의 교육자들, 교직원들, 교사들과 스태프들, 의료종사자들,, 그리고 안전담당 공무원들도 또한 그들의 직업 안에서 쇠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쇠신 작업은 가톨릭 교회의 직무에 봉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직업 분야와 전문가적 식견에 최적화된 후원과 일년간의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16. 2021년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2022년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교구의 마지막 쇠신 단계는, 교구의 사목과 선교사명에 대한 논의, 평가, 계획수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쇠신 단계에서는 한권의 책자가 출판될 것인데, 이 책자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온 쇠신 작업의 결과물들과 제가 오래전 주교직무를 시작한 이래 수행한 본당 사목방문들로부터 얻게 된 실제적이고 값진 정보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17. 쇠신 작업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동안, 각 단계의 시작을 전례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각기 다른 과정들이 겹쳐지기도 할 것이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쇠신 작업의 본질은 다양한 영적 선물들과 과제들을 전례적으로 기념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18. 쇠신 과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p><b>연중 제7주일 (2월 23일)</b> 신자들에게 주교님의 사목서한 발표</p>	<p><b>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화)</b> 수도자들의 허원갱신 및 공식적인 쇄신일정 시작</p>	<p><b>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수)</b> 수도자들의 허원갱신</p>
<p><b>재의 수요일 (2월 26일)</b> 사제들에게 주교님의 사목서한 발표</p>	<p><b>성유축성미사 (3월 29일, 월)</b> 사제서품갱신</p>	<p><b>성유축성미사 (4월 11일, 월)</b> 사제서품갱신</p>
<p><b>성유축성미사 (4월 6일, 월)</b> 사제서품갱신과 공식적인 쇄신일정 시작</p>	<p><b>부활 대축일 (4월 4일)</b> 평신도의 세례갱신</p>	<p><b>부활 대축일 (4월 17일)</b> 평신도의 세례갱신</p>
<p><b>부활 대축일 (4월 12일)</b> 평신도의 세례갱신과 공식적인 쇄신일정 시작</p>	<p><b>성령강림 대축일 (5월 23일)</b> 평신도 협의회의 쇄신 및 사목계획 일정 돌입</p>	<p><b>성령강림 대축일 (6월 5일)</b> 평신도 협의회의 쇄신 및 사목계획 일정 마무리, 그리고 실행단계의 시작</p>
<p><b>성령강림 대축일 (5월 31일)</b> 평신도 협의회의 쇄신</p>	<p><b>가톨릭학교 개강미사 (8-9월 중)</b> 교리교사 및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의 쇄신</p>	
<p><b>가톨릭학교 개강미사 (8월 중)</b> 교리교사 및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의 쇄신</p>	<p><b>화이트 미사 (10월 중)</b> 의료인들의 쇄신</p>	
<p><b>화이트 미사 (10월 중)</b> 의료인들의 쇄신</p>	<p><b>레드 미사 (10월 중)</b> 법조인들의 쇄신</p>	
<p><b>레드 미사 (10월 중)</b> 법조인들의 쇄신</p>	<p><b>블루 미사 (10월 중)</b> 공공 안전요원들의 쇄신</p>	
<p><b>블루 미사 (10월 중)</b> 공공 안전요원들의 쇄신</p>	<p><b>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11월 14일)</b> 부제들의 서약갱신</p>	
<p><b>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11월 15일)</b> 부제들의 서약갱신과 공식적인 쇄신 일정 시작</p>	<p><b>성가정 축일 (12월 26일)</b> 가정과 청소년의 쇄신</p>	
<p><b>성가정 축일 (12월 27일)</b> 가정과 청소년의 쇄신일정 시작</p>		

19. 이 과정 동안 제가 희망하는 바는, 우리 모두 매순간 자신의 성소를 잘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한 약속을 가슴이 깊이 새기고, 특정 축일들과 행사들에 때맞춰 쇠신하고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조화롭게 일치시킴으로써 더 큰 변화와 쇠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감각을 심화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20.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의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ate et Exultate)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봉헌생활자입니까? 자신이 봉헌한 대로 기쁘게 생활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혼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머니나 아버지입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권위자입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항)

21.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가정을 성령께 개방합시다. 이 쇠신의 시기가 우리 개인의 성화와 발전뿐 아니라, 교구 전체의 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감과 은총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22. 우리 켈거리 교구의 주보성녀이신 복되신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을 빌며, 저는 이 사목서한을,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 나오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향한 성모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위대한 사도의 지위에 올려 놓으시고, “복음화의 모델”이 되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복음의 기쁨. 288항)

동정 성모 마리아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겸손한 그 깊은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어  
영원하신 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으니  
저희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시급하고 절실한 부르심에  
기꺼이 “예” 라고 응답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신 성모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뛰놀게 하셨고  
성모님께서도 기쁨에 넘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셨으며  
십자가 아래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곳곳하게 서 계시어  
기쁨에 넘치는 부활의 위로를 받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시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부활의 새로운 열정을 저희에게 주시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움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다다를 수 있게 하소서.

경청과 관상의 동정녀, 사랑의 어머니,  
영원한 혼인 잔치의 신부, 교회의 지순한 모상이시여,  
교회를 위하여 전구하시어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감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는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시여,  
친교와 봉사, 관대하고 열렬한 믿음,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에서  
빛나는 증인이 되도록 저희를 도우시어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다다라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 하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어머니,  
작은 이들을 위한 기쁨의 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알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친애하는 그대들에게

켈거리 주교  
윌리엄 맥그라튼